

보 화 캐 기 (룻기) NO. 25 이름 ()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서론

룻기는 그 저자와 저작 연대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이방인 아내들을 강제로 버리게 한 일에 대해 반대하는 저항 문학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모압 땅의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 말론의 처가 되었다가 남편이 죽은 후 보아스의 처가 됨으로서 다윗 왕의 선조가 되는 계통을 들어내어 이방인에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보여준 기록이다. 룻기 자체의 윤리 성을 음미 한다면 룻이 다음에 올 결과에 대하여 염려 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훈계를 충실하게 따른 사실과 젊은이가 연장자의 지도에 순종하는 일이 미덕임을 보여준다. 젊은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덕이 훈훈하게 풍겨 나오고 있다.

1장; 1. 나오미의 두 자부중 자기 백성으로 돌아간 자부의 이름은? 답: _____

2. “나로 _____ 어머니를 _____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_____ 어머니께서 _____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_____ 나도 _____”

2장; 1. 룻이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웠으며 저녁까지 주운 보리가 얼마나 되었는가?

답: _____, _____

3장; 1. 3장에서 자부의 행복을 위한 나오미의 깊은 사랑의 배려가 나타나 있다, 룻은 자기의 비밀을 나오미에게 알렸는가? 숨겼는가? 답: _____

4장; 1.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들은 _____ 이요, 그는 _____의 조부가 되었다.

@@ 수혼 제도 @@

본서에는 룻이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여 집안의 대를 잇는 내용이 나타난다. 이는 본래의 수혼 제도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즉 신25:5-10의 율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남은 여자는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아 죽은 자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야하는데 룻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였던 것이다. 또한 본사에서는 죽은 자의 부인과 결혼할 경우 죽은 자의 기업을 물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4:5) 신명기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이 없다. 하지만 본서의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은 유다와 다말과의 사건(창38장)과 더불어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수혼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다말은 원래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그녀의 남편 엘이 죽자 유다는 엘의 동생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과 동침케하여 형의 대를 잇게 하려고 하나 오난은 자신의 임무를 회피 하였다(창38:8,9) 또 다른 동생도 주어지지 않자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여 시아버지 유다와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졌다. 이 사건은 그 윤리성 보다는 수혼 제도의 엄격성을 강조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본서의 기록에 의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더구나 기업을 무르게 되는데 이는 본래의 수혼 제도와는 많이 다르다. 기업 무를자(히, 고엘)의 의무가 첨가된 것이다. 이는 수혼 제도의 범위가 가족에서 씨족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족간의 혈통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의 융통적인 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